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변증 : C.S 루이스의 『나니아연대기』를 중심으로

장인숙 연대 일반대학원 신과대학 종교철학과

목차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과 현상.....	3
1. 포스트모더니즘 사조 안에서 다원화되는 사회.....	3
2. 다원주의 사회로의 변천과 타종교간 대화.....	5
3. 다원주의 사회의 안티기독교와 대응방안.....	6
III. 복음 변증가로서의 루이스.....	10
IV.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난 기독교 변증.....	13
1. 『마법사의 조카』에 나타난 창조.....	14
2.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16
V. 결론: 문학으로서의 기독교변증 가능성.....	19
참고문헌.....	23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변증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 일환으로 1929년 회심 이후 평생 강연과 저술작업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소명을 다해 헌신했던 C.S 루이스와 그의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변증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하지만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과 여러 시대상황에 의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면과제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 논문은 루이스를 통해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데 있다. 루이스는 전쟁을 치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문학을 도구로 하여 천국을 소망하도록 이끌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다원주의 사회의 형성과정과 특징들을 개괄한 다음 둘째 루이스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고 셋째 그의 작품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난 기독교 변증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문학으로서 다원주의사회에서의 기독교 변증 가능성을 검토 진단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현대 다원주의 사회의 현실에 맞는 기독교 변증을 찾고자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활용하여 문화를 통해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변호하는 일이 효과적이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기독교 변증,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I. 서론

기독교 변증의 목적은 예수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기독교에 대해 성경적으로 답하여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기독교변증의 기본 토대는 베드로전서 3:15-16의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에 있다. 이 말씀은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서 진일보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론을 찾기에 숙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원화된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는 다문화가정이다. 주로 외국인 이주 가정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성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가 된다. 우리 나라는 급속히 산업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리며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의 이주를 적극 추진하여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를 실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하였다. 우리 사회는 외국인의 증가로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사회가 되었다. 당연히 우리 사회는 모든 가치와 규범이 어느 하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가 나뉠대로의 의미를 가지면서 서로 공존하는 사회로 바뀌어 다원주의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경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에서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일의성보다는 다의성을,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단수성보다는 복수성을 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원주의의 요구는 인간의 구원 역시 다양한 종교를 통해 가능하다는 종교 다원주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변증의 방법론으로 루이스의 문학을 통한 기독교 변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두가 문학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방법론을 찾아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변호해보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미켈란젤로는 그림과 조각을 통해 기독교를 변호할 수 있었고 바흐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따라서 루이스의 문학을 통한 기독교 변증은 복음의 도구로서 은사 사용면에 있어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룰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 본 논문 주제의 장이 되는 다원주의에 논문의 전반적인 방향을 언급하고, 2장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과 현상을 그 모태가 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사회의 변천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기독교변증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루이스의

생애를 통해 그가 무신론자의 삶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이 된 신화 즉 진정한 신화로 받아들인 후 기독교 변증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신 재능을 개발하여 어떻게 각각의 은사로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 변증을 수행해낼 수 있는지 그 길을 루이스에게서 찾고자 한다. 4장에서는 루이스의 파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난 기독교 변증을 살펴보고 5장 결론에서는 문학으로서 기독교 변증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다윈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충돌과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학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단지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이나 스포츠 등 다른 방법도 또한 다윈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변증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다윈주의 사회의 특징과 현상에 대해 다윈주의를 배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II. 다윈주의 사회의 특징과 현상

1. 포스트모더니즘 사조 안에서 다원화되는 사회

현대를 가리켜 흔히 다원화된 사회라고 말한다. 다양한 가치체계가 공존하는 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양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다원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원주의를 포괄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현상들에 대한 설명들이 다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사조이다. 포스트모던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스페인 작가 오니스가 예술 분야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약간의 반발경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1960년대 들어서며 예술가, 건축가, 사상가들에 의해 현대를 지배하는 모더니즘에 대해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모더니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은 문화전반에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문예사조, 철학사상을 넘어 대중문화에까지 확산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서구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은 전세계로 확산되어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깊이 침투하여 사고방식과 관점에 깊이 작용하고 있다. 신학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 『포스트모던신학』을 통해서이다. 일반신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같은 해 종교다원주의 논쟁과 결부되면서이다.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문화나 신학을 넘어 한국, 민중, 여성, 자연 등 마진(변두리)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싶어한다(이문균, 2003: 23-25).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들은 그 성격 만큼이나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크게는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붕괴, 객관적인 세계상의 몰락, 웅대한 이야기의 거절, 과학의 일방성 거부, 진리의 부정, 절대권위의 부정, 상대주의적 관점, 다원주의, 지식의 대량화 등을 들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좁은 의미에서 현대의 철학문화 비판의 한 극단적 흐름인 해

체주의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20세기 중반 이래로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이다. 포스트모던 정신은 데카르트 이후 서구문명의 동력이 되어왔던 계몽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 과학기술주의를 비판한다. 이러한 과학기술주의가 서구의 정신적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자들은 서구 전통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의 죽음, 자아의 상실, 책의 닫음을 주장한다. 서구사상과 가치체계의 기반인 신의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신이 창조한 신의 형상으로서 인간자아가 사라진다. 역사는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여기서 성경은 더 이상 권위적인 경전이 아니다(김영한, 2007: 311). 21세기를 주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세속주의 풍조는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의 실재를 부정하고 사회의 제도를 부정하며 기독교의 진리와 제도에 대해서도 도전한다. 더욱이 해체주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오늘날의 시대풍조는 기독교의 설교와 윤리를 회의적으로 만들며 무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는 현대인이 가져야 할 객관적 가치나 진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좋을대로 만들어낸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절대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모호한 언어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 시대의 풍조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진리와 가치와 규범(김영한, 2008: 213)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 전통이나 권위도 부정하고 거대담론도 부정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필연적으로 상대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절대가치 대신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며 인정된다. 개인주의가 절대권위를 앞선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한 지식의 대량화가 이루어진다. 생태론적 관심이 고조되고 핵무기에 의한 종말의식도 고조된다. 고도의 정보화, 복제 인간화, 조직과 가치의 다원화, 세속종교화로 특징되는 사회이다.(김영한, 2005: 281).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사고체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기본 심성에 절대 신이 인간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린다. 그래서 ‘도마의 신’, ‘야구의 신’, ‘여신’, ‘공부의 신’, ‘만찬의 신’, 심지어는 ‘결혼의 신’까지 등장한다. 과연 이 시대는 누구나 신이 되는 시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임을 보여준다. 하늘의 절대 신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땅의 신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보며 역으로 신을 지향하는,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종교적 본성에 희망을 걸어본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도 여전히 신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신격화는 인간에게 언제나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들로서 신의 다스리심과 도우심, 그의 무한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인간 세상임에는 틀림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특징들은 다양성과 상대성으로 통합될 수 있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는 단원주의 사회를 낳을 수밖에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체계 안에서 다원화된 다원주의는 거의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관할 듯 보인다. 이제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와 이 종교 다원화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고민을 안고 우리는 다원주의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다원주의 사회로의 변천과 타종교간 대화

다원주의 사회(pluralist society)는 현대 사회의 특성 중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다양한 삶의 양식에 의한 다원성(plurality)을 인정하고 신봉한다는 의미이다. 다원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로 구분된다. 문화적 다원주의란 한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가 구성원의 삶을 풍요하게 해준다고 보는 태도이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종교들 간의 차이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다른 인식이며 종교적인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존중한다(Haydon, 1997: 116, n.1). 이로써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가 공존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 글로벌화된 시대로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나아가 다양한 가치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다원주의 사회로의 변천에 있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서구 기독교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큰 획을 그었다. 종교개혁 이전 중세는 기독교 신앙의 단일성이 교회와 국가와 사람을 지배하던 시기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단일성을 깨뜨린 사건이었다(정재현, 2006: 44)

인간의 자기이해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에는 근원탐구의 틀에서, 중세에는 신 이미지를 통해서였다. 16-17세기에 들어서며 인간은 자신을 직시하게 되었다. 근세를 열어준 자연과학은 인간의 자기 이해를 위한 새로운 범주에서 종래의 초자연과 구별되는 자연을 제시했다. 18세기에 이르러 산업화되면서 전통적 봉건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사회’라는 새로운 범주가 등장했고 정치학과 경제학에 이어 사회학은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사회이론은 사회적 변동을 주시하였고 19세기에 역사라는 범주가 부상되었다. 인간은 자기를 이해하는 면에서 자연에서 출발하여 사회와 역사와의 교직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현대는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삶으로 경험하며 20세기에 문화의 시대를 풍미하게 되었다. 신중심의 고중세는 당연한 배타주의로 귀결되었고 자연-사회-역사로 이어지는 근세는 인간의 불안한 실존을 극복하려는 낙관론으로 개진되었다. 종말을 통한 역사의 완성이라는 기독교에 대해 타종교들이 완성을 향한 중도단계로 간주되고 종국적 완성 안에 포함된다는 포괄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 20세기 들어 문화의 다양성 시대를 맞으며 문화상대주의는 종교다원주의로 진행되었다(48). 이같은 인간의 자기이해 변천사는 다원주의사회로의 진화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신학에도 현대의 이러한 다원주의사회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삶의 다름으로 이루어진 다양하고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의 시대정신을 주목하는 신학의 주제들을 보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종교신학과 문화신학, 생태신학과 생명신학, 여성신학 등은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서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49-50). 신학 뿐만 아니라 종교도 다양하다.

세계의 종교 문화권은 대개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유교와 도교를 산출한 중국 불교를 배태시킨 인도,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나온 중동 문화권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모든 종교가 혼재되어 있다. 현재 신도는 불교가 가장 많으며 기독교의 신, 구교를 합하면 숫자가 엇비슷하다(231). 현재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파죽지세로 늘어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면서 종교간 마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하다.

종교는 다양하나 기본적인 종교의 본질은 신과 구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무신론에 입각한 불교는 종교로 간주하기 어렵다. 종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죽음과 사후세계를 말한다. 한국인의 기저에 깔려 있는 유교 또한 인간의 사후세계를 잘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과 인간의 죽음과 구원과 사후 세계가 정확하다. 여기에서 기독교와 타 종교와는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 예수만이 진리라는 기독교의 변증을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비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코 유일한 구원자라는 주장은 편협한 것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존재 증명에 있어 불가지론은 신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없다. 무신론은 우주와 존재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는 진리일 수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영생과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 사회에는 그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저마다 섬기는 종교로 인해 필연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서로 살아야만 하는 구조다. 우리는 타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유일한 구원자를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도 질문해보아야 한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다소 제국주의와 병행하여 진행된 선교의 역사 만을 살펴 보더라도 종교는 강요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배워왔다. 종교는 무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양심 영역으로 인정될 때 지속적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서구에서 30년간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전쟁이 맺은 결론이다. 기독교 신앙이든 이슬람 신앙이든 종교는 개인의 양심 역역이기 때문에 국가나 단체가 강요할 수 없다. 종교의 다원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종교의 공존과 문명의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김영한, 2007: 112). 수많은 종교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기독교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변혁적 포용주의적 접근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점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나 타종교의 윤리, 종교적 태도를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 수용적 입장을 취한다. 기독교 변증은 이 입장에 설 때 포용주의 입장과 배타주의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김영한, 2005: 294-295).

3. 다원주의 사회의 안티기독교와 대응방안

다원주의 사회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진다. 이에 따

라 다원주의 사회는 종교의 다원화와 상대주의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교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와 요청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변증하는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숙고해야만 한다.

안티기독교의 역사는 서구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사신신학의 발생과 무신론에 대한 철학자들의 선언에서부터 그 본격적인 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서구유럽은 기독교에서 떠나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듯이 흔히 미문명 시대에 성행했던 미신의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의 일반화로 인해 안티기독교가 급속히 전염되었다. 그 시작은 대형교회들의 후계자 세습문제에서 기인하였다. 이어 교회 목회자들의 부정축재, 교회 재산의 사유화 등 물질문제와 더불어 성문제로 인해 불거졌다. 거기에 샘물 교회의 단기선교팀의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을 통해 기독교는 대거 개독교라는 맹비난을 본격적으로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겉으로 불거진 문제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었지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혹독하게 지탄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새천년이 시작되었다고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불꽃을 터트리며 환호를 올리고 있던 2000년이 시작되자마자 안티기독교는 봇물 터지듯이 터져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면 욱부터 하고 보는 안티기독교 시대를 맞게 되었다. 기독교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전도는 어려워졌다. 안티기독교인들은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다.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 기독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개혁이나 변화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김영환, 2008: 208).

한국교회연론회가 2007년 11월 23일 연동교회에서 ‘안티기독교와의 토론회’에서 안티기독교를 대변한 이찬경은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로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에 대한 멸시와 폄하를 일삼으며 피해를 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 지적했다.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기독교 입장을 전한 정강길은 “기독교계가 외부적 비판을 받는데 대한 자정의 노력과 자성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안티기독교 운동에는 기독교박멸주의라는 신념이 무차별적으로 전제되고 신봉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안티기독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안티기독교는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역사적 사실은 모두 허구다. 신화가 신화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인정 받으려는 것은 억지다.” 등의 독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211). 기독교는 다원주의 사회의 정중앙에서 안티기독교로부터 정면 공격을 받고 있다(113). 우리는 이러한 안티기독교의 화살을 피하여 숨지 말고 도리어 선한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변증해야 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시대에 맞는 복음 변증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탈리히는 기독교 변증에 있어 상호관계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조직신학』 서문에서 책의 저술 목적을 “변증적(apologetic) 관점에

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리히는 신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신의 초월성만을 강조하는 전통적 전통주의의 접근을 부적절함을 지적했는데 이는 신인관계에 있어서 접촉점의 난해함으로 인한 연관성을 갖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정재현, 2006: 72). 탈리히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해결방법까지 자연과 인간 안에서 모색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의 인본주의적 접근방법을 거부했다. 이 접근에서는 질문과 대답이 동일하게 인간으로부터 파생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신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접근방식들에 대한 탈리히의 거부는 상호대등성을 강조하는 구도에서 사물과 사태를 파악하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자는 취지를 지닌다고 하겠다(75-76). 탈리히는 상호관계방법의 목표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실존적 질문과 신학적 대답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탈리히의 상호관계방법은 변증학의 방법인데 그는 이미 어떠한 대답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도 신, 계시, 그리스도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없다고 한다(78) 이러한 탈리히의 상호관계방법은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신앙하지 않은 사람들 탈종교, 비종교 시대를 지나 신에 대해 관심도 없는 무종교 시대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한 변증신학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또한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상호관계성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탈리히의 이같은 상호관계성 방법론은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복음의 선포와 인간의 수용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문학방법을 통한 기독교 변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탈리히가 인간의 신인식에 있어 상호관계성을 중시했던 것처럼 루이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기독교 변증의 효과적인 전달방식을 늘 고민했던 것을 그의 저작들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다. 루이스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을 읽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전할지를 늘 생각했던 변증가였다. 루이스는 다윈주의 사회라는 현대의 새로운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의 의미를 더욱 적절하게 선포하기 위해 변증적인 방법으로 그의 문학을 전개하고 있다. 즉 그는 전쟁 중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재미 있게 들려줄까 생각하다가 무한한 상상의 세계인 판타지 문학 장르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판타지를 통해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성육신과 창조, 타락, 십자가의 수난 부활 등을 이 땅이 아닌 가상의 세계인 나니아라는 나라에서 보여준다. 아이들이나, 누구라도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어쩌면 루이스의 문학으로서의 기독교변증이야말로 탈리히가 말한 상호관계성을 통한 하나님 인식을 제대로 구현해낸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 세계에서는 탈리히의 상호관계성방법론을 통한 신인식에는 많은 제한이 있으나 가상의 세계인 판타지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학이 가진 기독교 변증의 또 다른 특별한 장점이라고 여겨진다. 루이스 또한 전통적인 신인식 접근방법을 거부한 탈리히처럼 자연주의에 입각한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배격한다. 루이스는 철저히 신본주의에 입각하여 기적을 이해하고 믿고 변증한다.

루이스가 문학이라는 예술 방식을 채택하여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천착한 사실에 대해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장점들 외에도 종교가 취하는 본능적인 표출방식이 예술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인간이 신과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영역이다. 예술은 영상적 상상력을 토대로 하는 상징성을 본성으로 한다. 이러한 상징성을 문자적으로 정태화하려는 시도가 신화로 나타났고 신화가 채택한 언어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초월자를 향한 열망이 학문으로 등장했다. 종교, 예술, 신화 등과 같은 양식들을 통해 인간은 신과 관계를 맺어왔고 학문이 성립되었다. 신은 학에 가둘 수 없다. 만약 신을 학에 가두게 되면 더 이상 신은 신이 될 수 없다(16). 학을 통해 신을 증거할 수 있다면 학의 한 분야인 예술로서의 문학은 매우 적절한 복음변증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음악적 재능을 받은 이들은 음악을 통해, 화가의 재능을 받은 이들은 그림을 통해, 무용의 재능을 받은 이들은 춤을 통해, 서예의 재능을 받은 이들은 붓글씨를 통해, 영상 제작의 재능을 받은 이들은 다큐나 영화 등 영상제작물 등의 예술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각기 나타낼 수 있다.

꽃은 피어서 아름다운 빛깔과 모양,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새는 저저귀며 공중을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의 달과 별들과 태양은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우리는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원과 생명을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특히나 다윈주의 사회에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제 한국 사회는 점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난관에 봉착할 여러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학교에서나 공공기관, 그리고 진철역에서도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많은 제한을 받고 법적 제재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예술 혹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예술이나 문화를 통해 복음을 변증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복음의 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변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루이스의 문학적 복음변증은 매우 탁월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제 그의 판타지 작품 『나니아연대기』를 통해 루이스는 복음을 어떻게 변증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난 기독교 변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루이스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작품에는 작가의 경험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작가의 생애에 대한 선이해는 작품을 이해하며 작가의 경험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발견하는 기쁨도 더해 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변증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회심 이후 성실하게 복음을 변증한 루이스라는 작가의 생애가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어떤 자원으로 상용되고 있는지도 눈여겨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오늘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가 복음 변증가로서 더욱 준비하는 삶에도 적잖이 보탬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III. 복음 변증가로서의 루이스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Clive Staples Lewis)는 1898년에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963년에 생을 마감한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영문학자로서 많은 명성을 얻었다. 영국 BBC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논증했고 이에 따라 ‘기독교 변증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작가이기도 하다. 코빗스콧 카넬(Cobit Scott Carnell)은 “루이스는 의심할 여지없이 20세기 최고의 모험적이고도 지적인 학자(14)이며 “감성 혹은 차가운 이성 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설득하려고 노력한 학자였다(16)고 그를 높이 평가한다. 루이스의 이러한 특징은 그의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루이스는 무신론자에서 1929년 회심한 이후로 그의 지성과 믿음을 통하여 기독교 변증가의 삶을 살았다. 따라서 루이스의 회심은 한 사람의 삶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변혁을 맞은 중대한 일이었음은 물론이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일이다.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루이스의 어린 시절은 어떠하였을까? 루이스는 부유하고 지성이 넘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많은 방들과 긴 복도를 가진 큰 집에는 정원사를 비롯하여 유모, 개인 교사들이 함께 생활했다. 형과는 마음이 잘 맞아 함께 읽고 그리고 놀고 공부했다. 집안에는 먹을 음식과 정신을 살찌울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다. 루이스는 집안에 있는 책들을 열심히 읽었다. 곳곳마다 쌓인 책들은 후일 그를 20세기의 지성인으로 키우는 좋은 양분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는 루이스는 9살 어린 나이에 인생 최대의 비극을 겪는다. 바로 암으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이다. 그는 자전적인 에세이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안정감을 잃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꿈을 펼치고 책을 맘껏 읽고 형과 덩굴고 뛰놀던 집을 떠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가게 된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학교는 후일 그의 저작들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재료들로 쓰인다. 루이스는 이 학교 이름을 벨젠이라고 불렀다. 나치의 학살이 있었던 독일 동북부 지역인 베르겐 벨젠에 있는 안나 프랑크가 수용되었던 나치의 수용소 이름을 본따 만든 것이다. 루이스가 올디(Oldie)라고 불렀던, 목사이자 교장이었던 로버트 캐프런(Robert Capron)은 거의 반미치광이로 심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까지 한 인물이다. 루이스는 벨젠에서는 학문적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2년을 그곳에서 더 보냈더라면 학자로서의 운명이 영원히 끝났을 것이며 상상의 세계는 퇴보해서 수년간 기쁨을 잊고 살았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올디는 루이스의 나니아 시리즈 중 『마법사의 조카』에서 우스꽝스럽고 갑자기 60대 노인으로 변한 마법사 앤드류 삼촌으로 등장한다. 루이스는 올디를 평생 용서하지 못하다가 끈질기게 노력한 후 죽기 몇 달 전에야 그를 용서했음을 고백한다(Downing, 45-46).

루이스가 아버지에게 사정하여 벨젠 학교를 그만 두고 다시 만난 교사가 바로 위대한 노크라고 불렀던 커크 패트릭이다. 그와의 만남은 루이스의 인생에 지적

토대를 쌓게 해주었다. 합리주의자이자 무신론자인 커크 패트릭은 루이스에게 이탈리아어, 독일어, 불어, 그리스어를 가르쳐주었다. 루이스는 커크 패트릭과 그의 부인을 통하여 고대 그리스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배움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한다(SBJ, 206-209).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마녀, 옷장』에서 디고리에게 커크 패트릭 교수를 이입시켰다. 루이스는 커크 패트릭의 집, 게스트즈를 떠나면서 고전 시대와 작별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친구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유물론적 사고체계를 갖게 된다. 기숙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게 된 루이스가 17세에 친구 아서 그리브스(Arthur Greeves)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최상의 종교도 아니며 그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대 참호에서는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큰 소리를 칠 정도였다(Downing, 13-14). 또한 모든 종교는 신화가 그에 맞는 적절한 이름을 부여한 것이므로 단지 인간의 창조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성적이었던 루이스에게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1년, 무신론자였던 루이스는 그의 일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2년 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 속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날 저녁 절친했던 동료 톨킨(J.R.R. Tolkien)과 휴고 다이슨(Hugo Dyson)과 함께 기독교에 관하여 긴 대화를 나누면서 루이스는 기독교를 ‘신화 그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월터 후퍼에 의하면 루이스가 수년간 기독교 신앙을 떠나 있었던 주된 이유가 신화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다(Sean Connolly, 서문). 이 일이 있는 후 며칠 뒤 형 워렌 해밀턴 루이스(Warren Hamilton Lewis)와 함께 윙스네이드 동물원(Whipsnade Zoo)으로 가던 길에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는데 그날의 경험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만큼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했다”(Surprised, 237)고 설명했다. 마치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같이 루이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았던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한 이후 루이스의 신앙에 큰 변화가 왔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의 부재에 화를 냈던 무신론자 루이스는 오랜 친구 그리브스에게 무신론자 시절, 하나님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것과 전혀 상반된 내용인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진정한 신화’(Dorett, 78)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루이스는 비로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신화에서 벗어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의 이야기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신을 믿는 수준을 벗어나 마침내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Downing, 165)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회심에 대한 확신을 밝혔다. 드디어 중세문학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변증가의 태동이 시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년시절부터 평생 동안 갈망하고 씨름했던 기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본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루이스의 인생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회심한 루이스는 문학과 철학 등 지성과 수많은 고뇌와 사색을 통해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변증과 개인적으로 써왔던 주제들을 솔직하게 글로 써서 책으로 출간하였다. 영국 BBC 방송의 종교분과 담당자 제임스 웰치(Rev. James Welch) 박사는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를 읽고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내 강연을 부탁했다. 루이스는 당대의 영국인들이 믿지 않았던 자연법 사상, 객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 1941년 8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15분짜리 강연을 시작했다. 이 방송은 1941년 8월부터 1944년 4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60만 명이 청취했다. 강연이 끝나고 난 뒤 엄청난 호응과 함께 루이스는 많은 편지들을 받았고 이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인격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에 대해 계속 강연했다. 루이스의 라디오 방송 강연 내용은 3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물론 더 많은 강연 요청이 있었지만 루이스는 할 말은 이제 다 했으며 더 많은 편지를 감당할 수 없어서 거절했다고 한다(Sayer, 300). 루이스의 라디오 강연들은 1952년에 『순전한 기독교』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믿음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우선 무신론을 반박했다. 인간 정신의 자연스런 비뚤어진 성향인 범신론(Pantheism)과 이원론(Dualism)을 기독교의 유신론(Theism)과 비교하여 삼위일체를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Atonement)’과 그것을 믿는 것이 진리임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루이스는 대외적으로 수녀원이나 교회, 여학교를 대상으로 강연과 설교를 하러 다녔다. 그중에서 특히 유명했던 설교가 바로 『영광의 무게』이다. 이후 루이스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당시 ‘전시 노역’으로서 수많은 공군 부대를 다니며 강연을 했다. 루이스는 이때의 공으로 처칠에게서 훈장 제의를 받으나 거절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회심한 루이스는 1963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에 대한 영향력과 평가는 대단하다. 루이스 마르크로스(Louis A. Markos)는 “회심한 이후 루이스는 이성과 직관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더욱 조화롭게 통합시키면서 간결하고 평이한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더욱 훌륭하게 변증할 수 있었다(67)고 평가했다. 이성주의자로 교육받았던 루이스가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신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바라봄으로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설득력 있게 변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페리 브램릿(Perry C. Bramlett)은 루이스에 대해 “비기독교인들도 거부감 없이 읽어나갈 수 있는 글을 써낸 몇 안되는 기독교 작가 중 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루이스는 BBC 방송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밝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기독교인과 비 기독교인의 구분없이 수백만의 청취자가 귀를 기울였으며 방송 후 그는 전 유럽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1929년 회심한 이후 기독교 변증을 소명으로 삼고 살았던 루이스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루이스는 일평생 39권의 저서와 125편의 논문, 68편의 시, 30여개의 서평, 23권의 단편 소설, 24편의 서문을 썼고, 사후에는 시론과 편지, 시를 묶은 유작

20여권이 추가로 출간되었다. 1963년 이후부터 그에 관한 책이 100여권 이상 출간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0만부 이상이 팔리고 있다. 산문 문학인 논픽션(nonfiction)과 순수 창작물이자 허구적 픽션(fiction)으로 『나니아 연대기』를 포함한 여러 환상문학 작품들, 그리고 총 4권의 시집과 2권의 편집서 외에 다른 작가의 서문을 써준 작품들이 있다. 루이스는 세상은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저서들은 이땅에 남아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또한 이땅에 살아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루이스와 같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서로 가진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을 통해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난 기독교 변증

이제 루이스의 많은 작품 중 『나니아 연대기』를 중심으로 기독교 변증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니아 연대기』는 루이스가 1950년부터 1956년까지 총 7년에 걸쳐 7권으로 완성한 연대기식 판타지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루이스는 성경을 나니아 나라에 옮겨 놓은 듯이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성경의 구속사와 같이 나니아 나라의 창조에서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술했기 때문에 판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루이스는 현실 세계만 보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실재를 가상의 공간 판타지라는 문학적 세계를 사용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펼친다.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에 있어 판타지 문학이 주는 유익을 잘 사용하고 있다. 루이스는 판타지라는 문학적 기법으로 독자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통해 즐거움을 주고 사실문학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초현실적인 세계를 무한하게 보여준다. 킬비는 『루이스의 기독교세계』에서 루이스가 사용한 방법은 신성한 상상력이 모든 기독교 변증가들에게 정당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50). 루이스 자신도 『고통의 문제』에서 특정한 관계를 이해시키려면 유비(類比, analogy)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61). 이러한 유비는 『나니아 연대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이 아슬란을 통해 유비되고, 창조의 기사들이 나니아와 성경을 통해 유비를 이루고, 타락의 이야기에서 제이디스 여왕과 하와는 좋은 유비를 이룬다. 루이스가 때로는 강연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문학으로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 변증에 힘쓴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찾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루이스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매우 단순하게 시작되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영국 런던에서는 폭격을 피해 어린이들을 시골 친척 집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때 루이스도 네 명의 아이들을 위탁 받았다. 이 아이들에게 루이스는 자신이 어렸을 때 옷장 안에 들어가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던 한 여자 아이가 “옷장 안에 뭐가 있는데요?”하고 물었다. 이 질문을 받고 루이스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아이들이 옷장 안에 들어가 모험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바로 『사자와 마녀와 옷장』(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이다.

루이스는 1961년 3월 5일 앤이라는 아이에게 답장을 보내며 『나니아 연대기』에 담긴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 알려준다. “『마법사의 조카』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처음에 어떻게 악이 나니아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 『말과 소년』의 주제는 이교도의 부름과 회심이다. 『캐스피언 왕자』는 타락한 종교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새벽출정호의 항해』는 영적 삶을 제시하는데 특히 리피치프의 아슬란 나라 탐험을 통해 다룬다. 『은의자』에서는 어둠의 세력에 맞선 지속적인 영적 싸움의 문제가 논의된다. 『마지막 전투』는 사악한 원숭이 시프트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종말이 도래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콜린듀에리, 85). 이 작품의 각권에 담은 주제들을 보아도 루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 성경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기독교를 변증하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작에 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각 권에 나타난 주제를 중심으로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마법사의 조카』에 나타난 창조

이 책에서 루이스가 변증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는 창조이다. 과연 루이스는 성경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펼쳐보여줄까?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하나님으로 등장할까?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 나니아 나라에서는 어떻게 창조사역을 얘기할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나니아 나라의 창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루이스는 나니아를 사자 아슬란의 노래로 창조한다. 아슬란은 나니아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떠올리게 한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상태가 나니아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나니아에서는 아슬란이 흑암 가운데서 노래로 나니아를 창조한다(79). 나니아의 창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흑암으로 둘러싸인 곳에 누군가 노래를 시작하고 그 노래는 땅과 하늘 그리고 빛을 만들어낸다. 아슬란은 바다황제의 아들로써 나니아를 창조한다. 노래로 자연환경과 생물들을 창조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이다. 예술가가 없이는 어떤 작품도 만들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7). 우리는 작곡을 하며, 그림을 그리고, 발명을 하고, 글을 쓰며, 계획을 세운다. 오직 그분이 먼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이 먼저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슬란의 노래 소리처럼 창조의 기적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컬트 브루너, 짐 웨어, 27) 나니아의 백성들은 ‘아담의 아들들과 이브의 딸들’이 다스리기로 운명 지어졌다는 것에 동의한다(78) 우리 세계에서도 인간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른 목적 중에서도 창조의 대리자로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 흠으로 지음 받은 모든 창조물 중 유독 인간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창 1:27).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며(창 2:7)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언어를 사용한다.

나니아는 아슬란에 창조되었고 아슬란은 나니아의 절대적 주권자이다. 아슬란은 나니아

의 존속을 위해 인간들이 나니아에 올 것을 요청한다. 아슬란 앞에 온 인간들은 그가 부여하는 임무를 받아들인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땅에 왔다. 각각 임무를 부여 받고 산다. 아슬란이 인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요일 4:19) (컬트 브루너, 짐 웨어 86).

나니아의 생물들은 그들을 창조한 아슬란을 기억하고 창조목적에 맞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마녀와 악한 왕으로부터 부당한 통치를 받으며 고통 당할 때도 아슬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건딘다. 비버와 오소리 패터트릭은 마녀의 통치와 악한 왕의 통치 속에서도 아슬란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킨다. 아슬란에 의해 임명된 인간 왕들 또한 그들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아슬란의 통치를 기다리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루이스는 나니아의 통치자 아슬란을 경배받기에 합당한 대상으로 그린다. 인간 왕들은 아슬란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한다. 아슬란을 만나면 누구든지 빛나는 광채의 위엄과 포효의 두려움 앞에 절로 경배하게 된다. 루이스는 사자 아슬란을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느끼도록 그리고 있다. 아첸랜드에 소식을 가지고 가던 샬스타는 아슬란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경배했다. 미라즈의 군대의 병사들도 아슬란을 보고 뿔뿔 떨어졌다. 칼로르멘의 병사인 에메스는 아슬란을 만나 참된 신을 향한 경배를 올린다. 루이스는 사자 아슬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주지시켜준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인 아슬란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후에 그 세계와 계약 관계에 자신을 묶어두듯이 나니아와 자신을 창조계약 안에 묶어둔다. 이 창조 계약 때문에 아슬란은 나니아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나니아의 회복자요 구속주로 등장한다. 루이스는 이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과 아슬란 사이의 강력한 유비를 보여준다 (John Morrison, 2). 그렇다면 나니아의 창조자 아슬란은 누구인가? 루이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명료해진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나니아의 창조자 아슬란에 대해 궁금해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편지 답장에서 나니아의 왕 아슬란에 대해 설명해준다. “아슬란은 레인Edward William Lane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이름을 따왔단다. 사자의 터키식 이름인데, 난 아슬란Ass-lan으로 발음했지, 당연히 유다의 사자를 의미한다.”(『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44). 루이스에 의하면 나니아의 창조자 아슬란은 유다의 사자를 의미한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루이스가 말하는 유다의 지파를 의미하는 아슬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루이스는 이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나니아 같은 세상이 있고 그 세상도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또는 ‘위대한 바다 황제’의 아들)이 우리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듯 그 세상도 구원하러 오신다면, 그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140). 또한 “나니아 같은 나라가 있다. 우리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처럼,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자가 되셨다고 가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69)라고 묻는다. 더 나아가 루이스는 아슬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교회의 절기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설명한다. “아슬란의 다른 이름에 대해선 한번 추측해 보렴. 우리 세계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잖니? (1)산타클로스가 오는 날 태어나고 (2)자신이 위대한 황제

의 아들이라고 하며 (3)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여 조롱당하고, 결국 사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며 (4)다시 살아나고 (5) 때로는 양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새벽출정호의 항해』 마지막 부분을 보렴). 우리 세계의 사람인데 정말 모르겠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게도 얘기해 주렴.”(48).

루이스가 어린이 독자들에게 답장을 보내며 설명해준 아슬란을 합해보면 나니아의 왕, 나니아의 창조자 아슬란은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여 루이스가 만들어낸 대상이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세계, 즉 나니아라는 세계에서도 보여주고자 루이스가 창조해낸 것이다. 따라서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루이스는 “나니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한 또 하나의 세계란다(따라서 우리 세계와 똑같지 않지).”(『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140)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루이스는 나니아의 창조자 아슬란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치하고 있다. 즉 바다의 황제의 아들 아슬란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언급이다. 이와 같이 루이스의 상상력 안에는 나니아연대기를 쓰는 내내 성경의 세계가 펼쳐졌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아슬란의 창조도 하나님의 창조와 비슷한 형태와 방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나니아의 창조기사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루이스는 성경의 창조기사를 가상의 세계에서 상상하여 모방하였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니아에서는 바다의 황제의 아들인 아슬란이 주권자가 되어서 나니아를 창조한다. 창조한 이후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던 것처럼 나니아에서도 또한 아슬란의 법에 의해 살고 사용하고 누리도록 규정되고 아슬란 또한 언약관계를 갖는다. 이는 문학작품을 통해 문학의 원형인 성경을 모방하여 하나님의 절대권위와 위엄과 창조의 능력과 통치를 가상의 세계에서 새롭게 보여줌으로써 기독교를 변증해내는 면에 있어서 루이스가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이 책에서 루이스가 변증하고 있는 기독교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다. 가상의 나라인 나니아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 아슬란으로 대체된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는 에드먼드로, 십자가는 돌탁자로, 두 마리아는 수잔과 루시를 통해 보여준다. 누구라도 이 책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여기에는 루이스의 변증관이 잘 담겨 있다. 즉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이 된 신화, 즉 성경의 이야기를 믿게 하려는 의도가 깊게 배여 있다.

가상의 나라 나니아는 루시에 의해 처음으로 독자에게 보여진다. 톰누스씨의 집은 루시에게 “이전에 결코 가본 적이 없는 멋진 곳”(15)이었다. 또한 루시가 톰누스씨에게 대접 받은 차와 음식 또한 환상적이었다.(16). 루이스는 루시와 톰누스씨의 만남을 통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의 환상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후 루이스는 한 장에 걸쳐 톰누스씨의 숲속 생활에 관한 신비로운(15) 이야기들을 독자의 눈 앞에 펼치듯 묘사한다. 숲이 초록으로 물드는 여름이면 바쿠스의 아버지인 늙은 실레노스가 살찐 당나귀

를 타고 찾아오곤 했고 가끔씩은 바쿠스도 직접 왔다고 했다. 그러면 시내에는 물 대신 포도주가 흐르고 온 숲이 몇 주일 내내 마음껏 축제를 벌였다.(16-17). 루이스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여러 신들을 등장시켜 동물들과 식물들이 함께 어울리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에덴과 천국의 이미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낙원의 이미지를 생동감 넘치는 묘사하고 있다. 루시가 나니아에 처음 방문했을 때 듣게 되는 파우누스의 숲 속 생활은 낙원 이미지를 지속키는 역할을 한다. 전쟁으로 힘든 마음들이 나니아의 아름다운 풍요로운 낙원 이미지를 통해 소망으로 대치된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한다. 루이스는 이 평화로운 나라를 공포로 이끄는 제이디스 여왕을 등장시킨다. 이 여왕은 온 나니아를 한손에 넣고 지배하는 여자이다.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는 겨울만 계속되게 만든 여자이다(29). 여왕은 오른손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빛 마법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머리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32-33). 나니아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여왕은 에드먼드를 이용하기 위해 유혹한다. 마법과 맛 있는 터키젤리 그리고 왕권에 대한 욕구는 에드먼드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에드먼드가 터키젤리를 한번 먹음으로써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에 넘어간 이 사건은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과를 먹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 것과 유비를 이룸으로써 뱀의 유혹에 대한 이브의 범죄가 에드먼드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여왕은 오직 나니아 세계의 지배라는 욕망만을 추구한다. 여왕은 형제들을 배신한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아슬란의 목숨을 요구한다. 마녀가 배신자 에드먼드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정당한 죄값을 요구한다. 마녀의 심오한 마법은 황제가 나니아에게 준 법이다.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온 나니아가 불과 물로 뒤집혀 멸망한다(156). 루이스는 마녀와 아슬란의 법적 대결을 통해 누구의 법이 더욱 강한지 독자에게 인식시킨다. 마녀가 심오한 법을 절대적 힘으로 사용하지만 아슬란은 더욱 심오한 법으로 마녀의 악함을 무너뜨린다. 이것을 통해 루이스는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을 부여해준다. 나아가 마녀의 마법을 이길 수 있는 더욱 심오한 법은 곧 배신자를 위한 희생까지도 마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증명하는 루이스의 중요한 메시지이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선, 즉 사랑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루이스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인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화가 사실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 즉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인류가 그간 꾸어왔던 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구원이 온다는 좋은 꿈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이다. 루이스에게 있어 기독교의 중심은 신화가 신화이기를 그치지 않고 사실의 세계 속으로 실제 역사 속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통찰에 기초하여 루이스는 우리가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그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신화들을 대하듯 상상력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무신론자에서 회심한 루이스는 기독교를 사실이 된 신화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종태, 57-58).

루이스는 여기에서 진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가상의 나라를 더럽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가상의 왕을 만들어낸다. 즉 사실이 된 신화를 보여주기 위해 가상의 나라와 그 세계를 창작해내는데 이는 루이스가 경험한 사실이 된 신화의 재창조 작업인 것이다. 나니아의 창조자이자 왕인 사자 아슬란이 배신자를 위해 대신 돌 바위에서 죽고 또 그 돌바위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 겨울만 지속되던 나니아에 봄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의 재신화화이며 이 이야기가 어린이들과 어른 독자들에게 주는 재미와 감동은 그 신화의 힘에 기인한다(이종태, 천국, 58-59). 아슬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게 만드는 유비효과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믿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비시켜주고 이미 성경의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운 가상의 나라 나니아의 아슬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만들어준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신앙의 유익을 더해주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 루이스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성경을 보듯이 아슬란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을 볼 때 그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은 바로 천국이다.

루이스는 자신의 거의 모든 책에서 천국에 관하여 언급했는데 『나니아 연대기』도 예외가 아니다. 성경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였으나 인간들이 타락하여 평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없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들 대신에 죄값을 치뤄 죽게 하였고 이를 믿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었다. 루이스에게 나니아는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잃어버린 세계이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것이 완전했던 세상, 이제는 찾아 볼 수 없어 끝없이 아쉬워하기만 하는 세상, 이곳에서는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그곳, 그 나니아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니아는 여느 SF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행성이 아니라 다른 세계라는 찰스 A. 브래디(Charles A. Brady)의 말처럼 나니아는 이 세계와 공존하는 다른 외계의 별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나니아는 루이스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다. 결국 나니아에 종말이 왔을 때 나니아 너머에 더 큰, 진짜 나니아가 있었고, 그 동안 주인공들이 살아왔던 나니아는 그런 진짜 나니아의 그림자 세계에 불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의 나니아가 그림자나 복사본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나니아는 바로 천국(Hooper 253)인 것이다. 마이클 넬슨(Michael Nelson)은 이러한 진짜의 나니아가 루이스의 천국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니아는 천국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을 보여 준다. 그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파우누스와, 거인들과, 센타우로스(centaurs)와 난쟁이들,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다.”(12) 따라서 나니아 왕국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 받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이 땅의 삶이 그러하듯이 진짜 나니아의 그림자 세계였던 나니아 왕국 역시 이상적인 완벽한 세계는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브래디는 “나니아의 이상은 파라다이스 만큼 숭고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문은 앨리스의 문처럼 간단하다”(5)고 말한다. 우리는 그림자 나라인 이 세계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진짜 나니아 즉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지향하도록 루이스는 우리를 안내한다. 이로써 루이스는 문학을 통한 기독교 변증에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문학으로서의 기독교변증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나니아 연대기』는 아동판타지 문학 뿐만 아니라 성경의 세계를 펼쳐 보임으로써 기독교 문학으로서 그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었을 뿐 만 아니라 젊은이, 어른들,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과 영상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기독교계에서 호불호가 갈린다. 『나니아 연대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루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해 혹자는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혹자는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그가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그의 대표작인 『나니아 연대기』에서 마법이나 신화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진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법으로 작품을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응교는 “만약 문학 작품에서 종교적 교의만을 작품에 담아내거나 읽으려 한다면 그것은 문학 작품이라기보다 종교적 문서 혹은 경전을 지향하는 글”(34)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문학과 교리가 같은 방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타당한 반론이라고 보여진다. 김응교는 “진정한 종교문학이란 당대의 역사적 문제점 위에 직설적인 교의를 넘어 암시적인 종교적 상상력을 풍기는 작품일 것(35)이라고 종교문학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이와 같은 김응교의 문학에 대한 정의는 문학에서 기독교의 사상을 담고 있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차용하거나 작품에서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는 정의이다. 문학은 사실을 반영하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그 성격상 작가를 포함해 어떤 장르의 문학이든 그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 현실을 모방하여 담아내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품이든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담고 있는 것이 또한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이다. 결국 문학은 현실을 담아내면서도 이상과 가상이 뒤섞여 적절하게 배합되고 구성되어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학 작품을 흥미진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시에도 형식이 있고, 수필도 무형식의 형식을 취한다. 논설문이나 논문, 서간문 등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소설은 또 장르가 구분되지만 거의 모든 소설에서는 극적인 전개를 암시나 반전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는 가상의 세계, 즉 상상의 세계를 작가가 최

대한 상상하여 만들어내야 하므로 마법이나 신화를 빌려올 수밖에 없다.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는 더더욱 아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판타지 장르상 마법과 신화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전에 성경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을 때 문학적 허용 장치들을 허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니아 연대기』가 신화와 마법을 차용하여 성경을 가일층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이스가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마법과 신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다.

한승용은 「C. S. 루이스와 『나니아 연대기』 비평(50-62)에서 판타지 문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나니아 연대기』가 성경과 반대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러나 한승용의 주장과 달리 모든 판타지 문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형식은 단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 즉 도구일 뿐이다. 작가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형식은 작가의 자유에 속한 고유 권한이다.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작가가 어떤 문학 형식을 차용하였을 때 그 작가의 가치관이나 사상이 자연 반영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판타지라는 형식을 빌려 쓴 『나니아 연대기』 작가 루이스는 회심한 이후 평생을 기독교 변증에 헌신한 사람이다. 강연과 저술, 작품들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을 그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였다. 그러므로 『나니아 연대기』가 성경과 반대된다는 송승용의 의견은 타당성이 약하다.

송승용과는 달리 송태현은 「C. S. 루이스를 통해 본 신화와 기독교의 관계」에서 루이스의 신화를 통한 기독교 복음 수용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153-171). 이종태는 성경은 문학의 요소들을 통해 영적 실체들을 사실적으로 구현(embodiment)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때문에 루이스에게 성경은 본질적으로 ‘영감 받은 문학(inspired literature)’이라고 말한다.(이종태 53). 기독교문학에 대해 루이스는 기독교 문학에만 적용되는 어떤 독특한 문학적 특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비평에 관한 이론들이 있을 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 영혼의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했다.(C. S. Lewis, “Christianity and Literature,” 37-52). 루이스는 그가 밝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학과 저술을 통해 쉬지 않고 기독교를 변증하였다. 루이스가 기독교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와 대비되는 이교적 허구의 산물인 그리스·로마신화와 그 신화적 요소 뿐만 아니라 마법을 작품 속에서 중요한 문학적 요소로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용한 마법이나 신화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읽고 심취했던 지적이며 정서적인 산물이며 문학적인 장치들인 것이다. 즉 작품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한 마법이나 신화의 효과적인 역할을 위해서이지 그 자체를 살려내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마법이나 신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술이나 신화가 아니다. 북유럽이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이며 그가 읽었던 여러 작품 속에 등장했던 요소들이다. 다시 말하면 문학적 전통 위에서 내려오는 요소들이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주술적인 것도 아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거나 뱀이 지팡이로 다시 바뀌는 그런 마술이 아니다. 마술사 시몬이 행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거나 악한 영의 힘을 빌어 사용하는 마술이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마술을 쓰는 자들을 죽이라고까지 엄히 경계하셨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톨킨이나 루이스의 판타지 작품들에 대해 읽기도 전에 미리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여주는 마법과 신화는 성경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들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마법이나 신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루이스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루이스가 마법이나 신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상의 세계, 즉 그림자의 세계이며 선과 악의 대결구도를 실감나게 묘사하여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함으로써 선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법이나 신화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 곧 천국임을 소망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마법과 신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를 읽을 때 고려할 점은 작품 속에서 마법과 신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한다면 이 작품을 대할 때 한결 거부감 없이 가상의 세계 나니아를 통해 또 다른 세계에서 성경의 세계를 경험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기독교 독자들에게 마법과 신화에 대한 거부감을 풀어주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이 장을 준비하였다. 루이스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 것을 보면 루이스에 대한, 또한 그의 판타지 문학에 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마법과 신화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기독교 변증에 대한 루이스의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루이스의 어머니 플로라 해밀턴은 죽기 전에 루이스의 아버지 알버트 루이스에게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루이스는 어머니의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다(LP, 120). 페리C. 브램릿Perry C. Bramlett은 루이스의 소명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소명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글을 쓰고 영적인 조언자나 친구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79).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들을 기독교 문학가라고 부른다. 이종태에 의하면 이러한 기독교 문학가들에 대해 파스칼, 키에르케고어, 도스토예프스키 이들은 모두 일반 신도들이었고 본격적인 신학저술을 남기진 않았지만 일반지성사회에 신학담론을 확장시키는 일에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큰 업적을 안겼다. 우리가 영국의 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지명도로 보자면 현재의 추이로 보아 그가 저 위대한 ‘파스칼, 키에르케고어, 도스토예프스키’의 반열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이

중태, 52)고 문학을 통한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라일 도싯은 1939년 이후 루이스의 편지의 주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분을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말했다(Dorett, 165) 즉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그를 사랑함으로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삶은 어떤 재능과 지식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겠다.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강연과 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었던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기독교 변증의 대작 『나니아 연대기』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신화나 마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또한 가상의 나라일 뿐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일깨워준다. 결국 루이스는 상상력을 통하여 작품 속의 인물은 물론 독자들에게까지 사실이 된 완전하고 궁극적인 신화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문학을 통한 기독교 변증에 대한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루이스는 ‘사실이 된 신화’의 과정 즉 성경의 구속사를 작품 속에 구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문학적 소명을 완성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우리는 루이스가 세계 대전을 치르고 또 그 이후 고통의 현실 속에서 또한 루이스 자신도 어린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내를 암으로 잃고 기쁨에 대한 갈망 속에서 무신론자로서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겪어내며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은 영국 시민들을 향하여 회심 이후 즐기치게 기독교를 변증한 것을 보았다. 우리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변증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루이스가 강연을 통해 저술을 통해 문학작품들을 통해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 그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그가 준비한 학문과 문학을 통해 복음을 변증한 것은 매우 탁월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루이스와 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수많은 그의 독자와 청자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회심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작품에 등장한 아슬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가 떠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그의 기독교 변증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변증의 효과와 필요성도 깊이 공감하게 된다. 그가 문화를 통해 복음을 변증했듯이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변증 방법을 찾아 기독교를 변호하는 일을 쉬지 않고 수행한다면 우리 또한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능히 사람들에게 루이스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여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땅에 루이스와 같은 헌신된 기독교 변증가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 서적 단행본

- 김영한(2005). 『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서울: 불과 구름.
- 김영한(2007). 『21세기 문화변혁과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영한(2008). 『21C 한국기독교 문화와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응교(2012). 『문학과 숨은 신 그늘』. 서울: 새물결플러스.
- 다우닝, C. 데이비드(2005). 『C. S. 루이스와 나니아 나라 이야기』. 이용중 역. 서울: 지식과 사랑사
- 더글러스 길버트, 클라이드 S. 킬비(2010). 『C.S루이스 그의 삶 그의 세계』. 가치창조.
- 듀리에즈, 콜린(2005). 『나니아 연대기 해설집』. 이용복 역. 서울: 규장.
- 디치필드, 크리스틴(2005). 『나니아 연대기가 읽어주는 성경』. 김의경 역. 서울: 크림슨.
- C. S. 루이스(2002). 『고통의 문제』.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 (2005). 『나니아 연대기』. 햇살과 나무꾼 역. 서울: 시공주니어.
- (2001).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 (2003). 『예기치 못한 기쁨』. 강유나 역. 서울: 홍성사.
- (2003). 『천국과 지옥의 이혼』. 김선형 역. 서울: 홍성사.
- (2004). 『헤아려 본 슬픔』. 강유나 역. 서울: 홍성사.
- 린즈콧, 캐스린(2005). 『나니아 연대기의 거의 모든 것』. 김의경 역. 서울: 크림슨.
- 브루너, 컬트, 웨어, 짐(2005). 『나니아에서 만난 하나님』. 황혜정 역. 서울: CUP.
- 스콧버슨. 제리윌즈(2009). 『루이스와 쉐퍼의 대화』, 김선일, IVP.
- 새클, 피터(2005). 『나니아 가는 길』. 박종윤 역. 서울: 베이스 캠프.
- 이문균(2003).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 정재현(2006). 『망치로 신학하기』, 한울 아카데미.
- 페리 브렘릿(2002). 『작은 그리스도 C. S. 루이스』. 강주현 역. 서울: 엔크리스토.

2. 평전

Downing, David(2003). 『반항적인 회심자 C. S. 루이스』. 강주현 역. 서울: IVP.

Duriez, Colin(2005). *Tolkien and C. S. Lewis: the gift of friendship*. 『루이스와 톨킨: 우정의 선물』.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3. 논문 및 정기 간행물

송태현. 「C.S. 루이스를 통해 본 신화와 기독교의 관계」. 『신앙과 학문』. 통권 제35호.

송태현. 「C.S. 루이스의 환상 문학 세계 /C. S. 루이스 읽기(1)」. 『목회와 신학』 통권 199호.

이종태. 「C. S 루이스: 천국을 상상한 ‘순전한 기독교’주의자」, 『기독교사상』 2006. 3월호.

황치복. 「판타지 문학의 성서적 함의와 풍유: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문학과 종교』. vol.13 no.3.

4. 외국어 서적

Lewis, C. S(2001). *The Screwtape Letters*. New York: HarperCollins.

-----(2001). *Mere Christianity*. New York: HarperCollins.

-----(2001). *The Problem of Pain*. New York: HarperCollins.

-----(1991). *Surprised by Joy*. New York: Harcourt.

HarperCollins(2001).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Linskoog, Kathryn(1998). *Journey into Narnia*. CA: Hope Publishing House.

Schakel, Peter J(2002). *Imagination and the Arts in C. S. Lewis: Journey to narnia and Other Worlds*.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Brady, Charles A(1972). "Finding God in Narnia." *Bulletin of the New York C. S. Lewis Society* 3.

Myers, Doris T(2002). "The Chronicles of Narnia: A Miniature Bible?" *Lamp-Post of the Southern California C. S. Lewis Socie*26(Spring-Summer).

Hooper, Walter and Roger Lancelyn Green(1994). *C. S. Lewis a Biography*. New York: Harcourt.

Hooper, Walter(1996). *C. S. Lewis: A Companion and Guide*. San Francisco: HarperCollins.

